**나누는 즐거움을 만나다 – 2011 사랑의 김장담그기**

총무팀

김동균 과장

이제는 빗소리보다 하얗게 날리는 눈이 더 익숙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을 한창 준비하곤 하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찬인 김치. 그 중에서도 잘 익어서 아삭거리는 소리는 내는 김장김치는 산해진미 그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겨울밥상의 기본인 그 김치가 더욱더 소중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자체 및 봉사단체에서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진흥기업도 올해도 역시 용산구청과 후암동에서 주최하는 ‘2011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참여해서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힘깨나 쓴다는 남자 직원로만 구성해서 참석한 이번’사랑의 김장담그기’에서의 첫번째 작업은 행사장소인 후암교회으로 배달된 절인 배추를 물로 헹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김장 담그기에 사용된 배추는 3,000포기가 조금 넘습니다.

자원봉사 아주머니들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는 노란 배춧잎에 굴 하나 집어넣어 저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김치 맛이 그토록 달콤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두번째 작업은 물로 헹군 배추를 테이블로 옮기면 미리 준비된 김치속을 배추속에 겹겹이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임무는 테이블로 잘 씻겨진 배추와 김치속을 테이블로 옮겨주며, 배추와 속이 모자라지 않게끔 배달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력(?)이 붙은 뒤에는 아주머니들이 하는 대로 배추를 꺼내어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할수록 속력이 붙고 간간히 먹는 김치는 피로회복제였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크게 김치를 싸서 제 입에 넣어 주셔서 입 주위가 삐에로 마냥 빨갛게 양념립스틱을 바른 듯 변했고, 그때마다 주위에선 웃음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아파왔지만, 속이 채워진 배추가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제 마음 속도 뿌듯함이 차곡차고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번째 작업, 완성된 김장배추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박스 포장작업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THE RUBENS 나눔의 봉사단은 역시 힘쓰는 일에서 단연 최고로 빛났습니다. 여기 저기서 저희를 필요로 하면 달려가서 일들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점심시간. THE RUBENS 나눔의 봉사단이 제일 먼저 식사를 하게끔 주최측에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덕분에 우리가 만든 김장김치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휴식도 잠깐, 준비된 배추를 김장을 하려면 막바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올해는 고추값 등 부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나마 배추 작황이 좋아서 3,000포기라는 많은 양의 김장을 담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번째 작업, 김장된 배추김치 박스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지역사회 소외 계층, 복지단체로 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고 하니 뿌듯하였습니다.

김장담그기의 하이라이트 돼지고기 수육에 김장김치를 얹져 먹는 보쌈 김치맛은 역시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회사의 워크아웃개시로 인하여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THE RUBENS 나눔의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의 김장담그기는 봉사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그동안 왕래가 적었던 본사 직원들간의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눔의 봉사단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 마을과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끔 1박2일의 농촌체험 일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들의 THE RUBENS 나눔의 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